교류가 가져온 번영과 질병

Prosperity and Disease Brought through Exchanges

근대에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인종·국가·대륙을 넘나드는 교류가 급속도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국제 무역망을 통해 각 지역의 풍토병 역시 경계를 넘어 여러 국가와 대륙에 전파되어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팬데믹으로 발전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질병 문화권'이 된 것입니다. 19세기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콜레라를 대표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발병한 스페인독감 또한 제 1차 세계대전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만큼 끔찍했던 팬데믹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대 교류의 이면

The Dark Side of Modern Exchanges

인도에서 유럽으로 콜레라 확산 경로를 보여주는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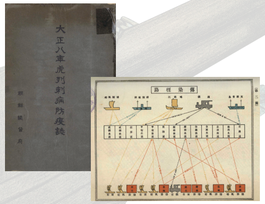
Map showing the route of cholera spread from India to Europe

1831 | 프랑스국립도서관 디지털도서관 (Source gallica.bnf.fr / BnF)

콜레라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예방 검역지침

Jenchuan(Incheon) Corea Provisional Regulations for the Prevention of the Importation of Cholera

1886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대정8년 호열자병 방역지

1919 Cholera Epidemic Prevention Log

1920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1918, 팬데믹 시대의 서막

1918: Act 1 in the Pandemic Period

미국 캔자스주 군인병원

Military Hospital in Kansas, USA

1918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감옥에 가라'는 팻말을 든 캘리포니아 주민

California residents with a sign written 'wear a mask or go to jail.'

1918 | The Annual Dipsea Race

마스크를 쓴 고양이

Cat with a mask

1918 | Dublin Heritage Park & Museums | OAC

축음기 광고

Phonograph ads

돌아온 감염병의 시대

The Period for the Return of Contagious Diseases

백신과 항생제로 대표되는 20세기 치료 의학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감염병에 대한 인류의 대응 능력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1948년 미국 국무장관 조지 마셜(George C.Marshall)이 감염병 정복이 임박했다고 선언하면서 인류는 길고 지루했던 감염병과의 투쟁을 끝낼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혔던 천연두를 박멸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거라는 희망과 달리 1980년대 후천성면역결핍증(HIV/AIDS), 속칭 에이즈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 후로도 새로운 감염병이 속속 등장하며 팬데믹은 계속되었고, 대유행 주기는 오히려 짧아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해질 때까지: 대응

Response: Until Everyone is Safe

중앙방역연구소 소보 창간호

The Bulletin of the National Institute for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the first issue

1949

국제예방접종증명서와 건강 안내문

International certificates of vaccination and health information

1965

감염병 치료를 위한 인류의 노력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1976

아기수첩

Baby Notebook

1976

1977. 10 마지막 천연두 감염 사례 보고

1979

육아수첩

Parenting Handbook

1979

1980. WHO 천연두 박멸 선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경고

Warning: No One is Safe

1957 아시아독감

1968 홍콩독감

2003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2009 신종인플루엔자(돼지독감)

2012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2014 에볼라

2019 코로나19

홍콩감기 예방 안내문

Hong Kong flu prevention guide

중동호흡기증후군 예방 안내문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prevention guide

2015 | 김백남 기증

에볼라 확산은 밀림 파괴와 밀렵에 대한 '보복'

Ebola spread, 'revenge' for jungle destruction and poaching

2014 | 중앙일보

송파구 제공 자가격리키트

Self-quarantine kit provided by Songpa-gu

2020 | 김백남 기증

감염병 역사

History of infectious diseases

- BC 430 — **아테네 역병** 장티푸스, 발진티푸스 / Plague of Athens
- 165 — **안토니우스 역병** 천연두, 홍역 / Antonine Plague
- 541 542 750 — **유스티아누스 역병** 페스트 / Plague of Justinian
- 1346 — **페스트** / Pest (Black Death)
- 1520 — **두창** 천연두 / Smallpox
- 1618–1648 — **30년전쟁 중 유행병** 선페스트, 티푸스 / Epidemic during the Thirty Years' War in 1618–1648
- 1816 — **콜레라** / Cholera
- 1880's — **황열병** / Yellow fever
- 1918 — **스페인 독감** / Spanish Flu (H1N1)
- 1957 — **아시아 독감** / 1957–1958 Influenza Pandemic (H2N2)
- 1968 — **홍콩 독감** / Hongkong Flu (H3N2)
- 1981 — **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 / HIV/AIDS
- 1997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조류독감 / Avian Influenza (H5N1)
- 1998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 Nipah virus infection
- 2003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스 /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 2009 — **신종인플루엔자** 돼지독감 / Novel Influenza(Swine flu)
- 2012 —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 2014 — **에볼라바이러스병** / Ebola virus disease
- 2015 —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Zika virus infection
- 20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COVID-19

김백남 『해외의학』 (2020). 코로나 사스 메르스 그리고 에볼라. 서울: 김백남 기념 보건의료재단.

대한민국역사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3층 기획전시실 2022.09.08.~2023.01.31.

다시,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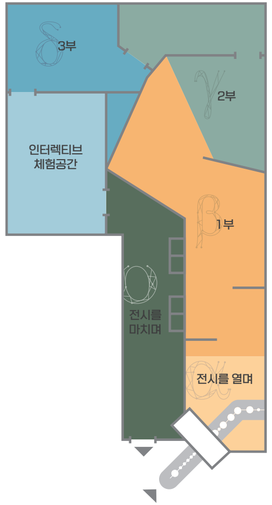
RE-CONNECT

UNTIL EVERYONE IS SAFE

Special Exhibition on Pandemic

팬데믹 특별전 모두가 안전해질 때까지

전시실 안내



전시 장소 | 3층 기획전시실

관람 시간 | 월, 화, 목, 금, 일 10:00~18:00

수, 토 10:00~21:00

(관람 종료 30분 전까지 입장 가능)

휴관일 | 매년 1월 1일, 설, 추석

관람료 | 무료

주차 | 박물관 주차장은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분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람 문의 | 02-3703-9200 | www.much.go.kr

다시, 연결

Re-Connect

코로나19 팬데믹은 감염병 유행이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명료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국가 간, 지역 간 단절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붕괴, 경제력에 좌우되는 불평등한 백신 공급,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과 차별 등 우리 사회의 취약한 모습들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가 코로나19를 비롯한 인수공통감염병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며, 이 문제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인류의 팬데믹 극복을 방해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감염병은 의료적 대응만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평등의 덫

Inequality Traps

코로나19 백신

COVID-19 Vaccines

2021~2022 | 김백년 기증

편견과 차별을 넘어

Transcending Bias and Discrimination

연합뉴스

다시 찾은 파란 하늘

Blue Skies Seen Again

내가 북극이다

I am the Arctic

2020 | 전창환

회색시대

The Gray Age

2021 | 전창환

전시를 마치며

Epilogue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 인구의 이동과 무역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는 이상 병원체의 전파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세계보건기구는 "모두가 안전해질 때까지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No-one is safe until everyone is safe)"라는 코로나 대응 구호를 통해 세계시민의 연대와 협력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인수공통감염병을 필두로 한 대규모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유행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끝은 결국 끝이 아닌, 다음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한 기나긴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여 다시금 병원체와 인류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넓히고, 타인을 잠재적 보균자로 여기는 대신 감염병의 위협에 맞서 함께 공동체를 유지하는 이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모두가 안전해질 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다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코로나19, 예술로 기록

COVID-19,
Recorded in Art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일상을 예술가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일상의 아픔과 희망을 창의적인 시선으로 표현한 다양한 작품을 이곳에서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시를 열며

Prologue

2019년 처음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팬데믹*으로 지속되고 있는 오늘, 세계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코로나19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 신종 감염병은 전에 없었던 돌발 상황일까요?

감염병은 인류 역사와 줄곧 함께였습니다. 천연두는 1만 년 이상 인류를 괴롭혔고, 중세인들은 흑사병을 신이 내린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대에는 콜레라와 스페인독감 같은 감염병이 수시로 인류를 위협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의학과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일부 감염병의 위력은 약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많은 감염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영향으로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병원체가 전파되는 '인수공통人獸共通감염병'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사회의 취약한 부분을 또렷하게 드러내 주기도 했습니다. 국경 폐쇄와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가 가져온 혼란, 경제 격차에 따른 불평등한 백신 분배, 감염자를 특정 인종·계층·종교와 결부시키면서 나타난 편견과 차별 등 여러 사회 문제가 감염병 종식만큼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무엇보다 감염 공포로 반복되고 있는 격리와 차단, 그에 따른 사회적 단절은 인류의 소통과 연대까지 가로막았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다시, 연결'하는 일 아닐까요?

이번 전시가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충분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팬데믹(Pandemic)은 우리말로 '감염병 세계적 유행'을 뜻한다.
감염병이 두 개 이상의 대륙에서 동시 발병·확산되는 현상으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의 감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에 해당한다.